

a+u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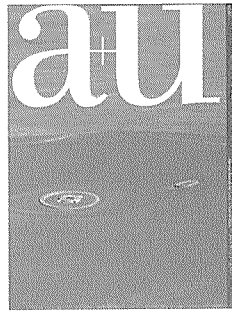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u

2002년 7월

이번 호에서
는 미국 아리
조나주의 사
막지대에서
사막의 기후
와 풍토에 적
응하여 그곳
특유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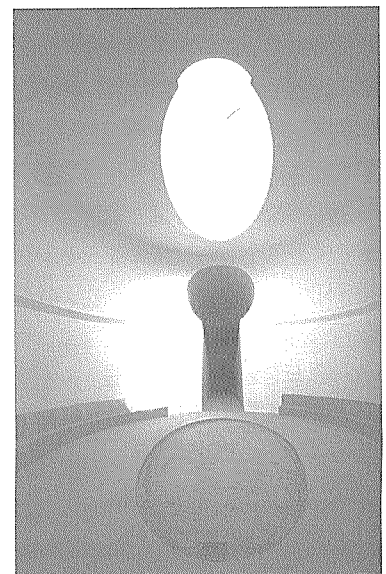
문화를 창조해나가고 있는 아리조나주의 건축가들을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어 본래 이곳의 버나쿨러한 건축이라는 것조차 없었던 땅에 타지에서 이주해온 건축가들이 마찬가지로 이주해온 이 지역의 현 거주자들을 위해 만들어 가는 아리조나주의 건축 문화를 작가별로 소개하고 있다.

■ 특집: 아리조나주의 빛과 사막의 건축
아리조나주의 면적은 일본과 거의 같다. 그러나 그 인구는 약 500만명으로, 그 절반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대도시 피닉스에 거주하고 있다. 튜손(Tucson)이나 플래그스태프(Flagstaff)같은 곳은 작은 도시로 주의 대부분은 기암썩 놀라울 만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광대한 사막이다. 여름에는 45도에 이르는 높은 기온을 공조시설에 의해 제어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인디언과 몇몇 개척자들을 제외하면 아리조나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현재의 주민들의 대부분은 미국의 북동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이곳에서 버나쿨러라고 불리울 만한 건축은 결코 이루어진 적이 없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1928년에 실현되지 않은 계획안인 '산 마르코 데저트 리조트'를 설계하였고, 1930년이래 '탈리아신 웨스트'와 그 주변의 10동 정도의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아리조나를 방문했다. 그 때 그는 아리조나에서 건축을

설계하기 위하여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의 캔버스를 손에 들고 있었다.

▶ 제임스 터렐의 로덴 크레이터(1973-2003)

야심에 찬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남부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것처럼 경제적인 호황에 이끌려 야망에찬 사람들이 과거 30년간 아리조나로 몰려들었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재능있는 건축가들도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눈부신 햇빛과 투박한 지형은 건축가나 예술가들에게 하나의 매력으로 작용했으며, 과거 20년간 로덴 크레이터(Roden Crater)를 세계 최대의 빛의 작품으로 만든 예술가 제임스 터렐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경의는 영감의 원천이었으며, 이것은 과도하게 건설이 진행되어 교외화가 이루어진 남캘리포니아와는 대조적으로 아리조나에는 지금도 소중하게 다뤄진 랜드스케이프가 많이 남아있다는 감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의 로덴 크레이터 인스톨레이션은 아리조나주의 사화산 분화구인 로덴 크레이터 안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동해 가는 빛을 지각시키는 특이한 장치이다. 몇 개의 방과 통로, 터널, 그리고 분화구의 내부와 외주부에서 하늘로 열린 개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임스 터렐의 로덴 크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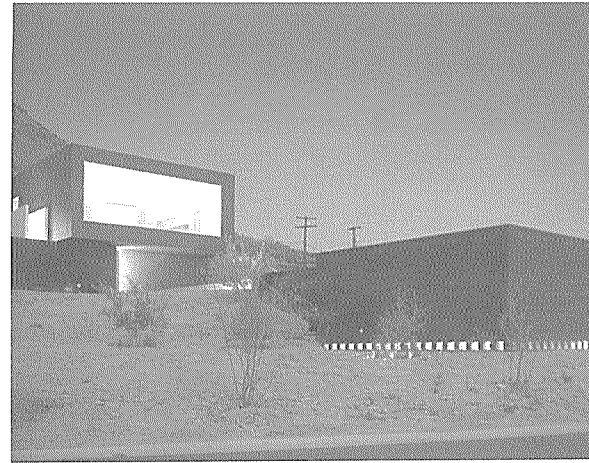
▶ 아리조나주 건축의 중심적 존재 윌 부르더

다른 많은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개발은 피닉스에서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 도시에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과 중심에 노출된 거대한 암반, 인상적인 일몰의 풍경, 그리고 자생의 선인장이나 팔로 벨르데, 아이언우드 나무와 같은 자연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해온 건축가들 중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설계 의뢰를 받는 것은 좀처럼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작품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못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그들의 생활을 위해 이 지방의 일들을 떠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들이 이루어낸 예술적인 성과는 주목받을 만하다. 새로운 아리조나 건축의 중심적 존재인 윌 부르더(Will Bruder)는 라이트의 출신지이기도 한 위스콘신주로부터 1967년에 피닉스로 이주해왔다. 부르더는 사막이 거칠고도 깨지기 쉬운 것임을 이해하고 대지를 포용하는 형태, 내구성 있는 소

재, 그리고 자연의 빛을 떠나어 투과시키는 전략들을 세워 사막에 적합한 어휘들을 개척해 왔다. 그의 주택, 도서관, 그리고 각종의 건물들은 시와 기능주의를 한데 엮어 놓고 있으며, 피닉스 중앙도서관(1993-97)'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기념비적인 공공건물중의 하나이지만 이로 인해 그가 아리조나지방의 설계의뢰를 많이 받아내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그는 아리조나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 작품을 의뢰받고 있다. 번저택(Byrne Residence)'은 피닉스 북쪽 끝의 본래 목장이었던 터에 자립잡고 있다. 이 주택은 동굴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거칠은 랜드스케이프에 맞춘 거칠은 형상의 셀터이다.

▶ 윈델 바넷과 릭 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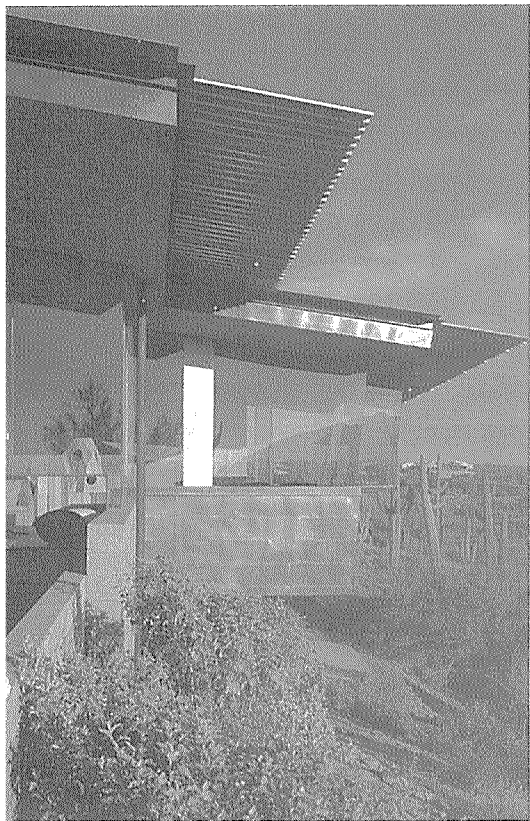
윈델 바넷(Windell Burnett)은 추리신지인 테네시주에서 피닉스로 이주해 탈리아신 웨스트에서 건축을 배운 후 부르더의 사무소에 합류하여 피닉스 중앙도서관의 책임자를 맡은 바 있다. 그는 피닉스 중앙지구에 노출된 암석에 맞추어 자택을 설계하였다. 이 주택은 열과 일사를 차단하는 형태를 충족시키면서 콘크리트 블록에 의한 장식적이지 않은 미니멀리스트의 구조체이다. 이러한 미니멀리스트적인 태도는 데이빗 밀러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도 나타나는데, 랜드스케이프의 강조와 자연의 빛을 강조하는 건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건축표현이 효과적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는 '세 개의 선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한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스칼 저택(Schall Residence)'에서는 풍부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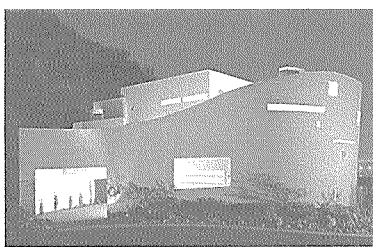
토커 저택(Tocker Residence)

현성을 가지면서 여러겹의 레이어를 만들어내었다. 그동안 건설되지 못하고 있었던 '토커 저택(Tocker Residence)'에서는 스칼저택에서처럼 리빙 에어리어를 마련하는 동시에 외부와 구획되는 공간으로서 벽으로 둘러싸인 수영장을 첨가하여 평범한 교외의 부지에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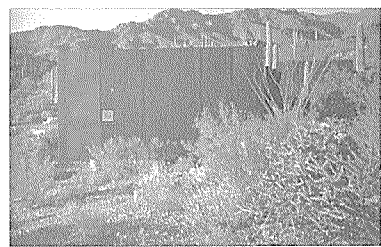
미국 북동부에서 온 릭 조이(Rick Joy)도 튜손에 자신의 오피스를 내기 전에는 부르더 밑에서 피닉스 중앙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튜손은 멕시코의 영향을 강하게 보이는 곳으로 사울로신장이 점점이 서있는 경관이 장관이 펼쳐지는 소노런 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조이는 건축가로 전환하기 전에 주택건설의 목수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섬세한 감각을 갖고 사용된 천연의 재료가 그의 건축의 특징을 이룬다. 그는 높은 벽을 갖는 자신의 스튜디오와 몇 채의 주택에서는 다져진 흙을 사용하고 있으며, 타일러저택과 곧 완공되는 까사 잭스(Casa Jax)에서는 자연적으로 풍화된 철을 사용하였다.



번저택(Byrne Residence)



스칼 저택(Schall Residence)



까사 잭스(Casa Jax)

신건축

2002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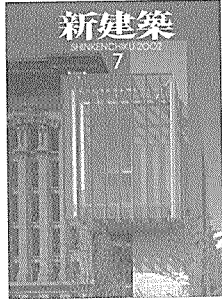
이번 호의 작품 소개에서는 안도 타다오의 책을 주제로 한 두 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축한 「국제 어린이 도서관」과 일본의 작가 「시바료타로」 기념관이다. 특집으로는 최근 일본의 공공시설 프로젝트의 설계과정에 자주 등장하는 워크샵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워크샵을 통해 완성된 프로젝트 예를 통해 워크샵의 의미와 워크샵에서의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점검해 보고 있다.

■ 작품: 안도타다오의 책을 주제로 한 2개의 최근 작품

▶ 과거 기억의 계승과 현재 시점의 개재 - 「국제 어린이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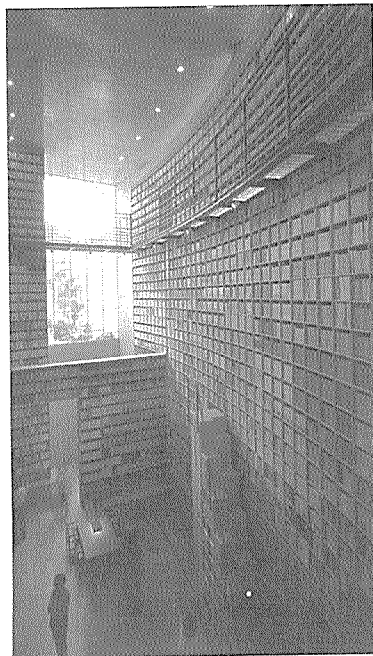


과거 기억의 계승과 현재 시점의 개재 - 「국제 어린이 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일본의 명치시대부터 약 100년의 시간을 넘겨서 있던 舊국회도서관의 개축으로 무엇보다도 그 오래됨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안도 타다오는 구건물의 바다, 벽, 천장의 구조물 하나하나에 스며든 직인들의 손의 온기는 현대 건축에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을 어린이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명치기에 만들어진 부분은 내진 보강됨과 함께 되도록 구건물의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증축부분이 설계되었다. 100년전의 조적조의 건물과 증축된 부분의 철과 유리의 건축물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면서 과거의 재생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건축가는 말하고 있다.

▶ 작가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기념관」
시바료타로기념관은 시바 료타로라는 20세기 일본의 자랑할 만한 작가의 존재 자체에서 촉발되었다. 구체적인 이미지의 원천은 기념관에 인접해있는 자카자택의 서가의 광경이다. 거기서는 시바가 원고집필을 위해 모았다고



작가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기념관」

하는 방대한 자료문헌이 들어서 있었다. 이것은 작가가 생애를 통하여 간수해온 책으로 둘러싸여진 공간이다.

안도 타다오는 이 건축을 단순히 고인의 자료문헌을 보존하기 위한 자료관이 아닌 작가 시바료타로의 마음을 내관자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랐다. 시바료타로가 생전에 생각하고 집필활동을 이어간 창조공간을 건축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제가 된 것이다. 당연히 기념관의 중심공간은 높이 11미터에 이르는 서가로 둘러싸인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작가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 특집: 워크샵과 건축가의 역할

최근 일본에서는 건축의 설계과정에 있어서 '워크샵'이라는 것이 자주 포함된다고 한다(여기서 워크샵이란 건축물의 사용자를 포함한 건물의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대우행' 중이라고 표현하는 이도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건축 설계과정 속에서 워크샵을 할 것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곳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나아가 워크샵은 건축의 디자인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번 특집에서는 워크샵에 있어서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워크샵의 경험이 있는 건축가 4인과 계획계 연구자 5명에게 평소 워크샵에 대해 느껴왔던 부분에 대해 글로 서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워크샵을 설계 프로세스에 포함시켜 완성시킨 6개의 작품을 워크샵 리포트로 첨부하여 소개하였다. 워크샵을 통해 완성된 6개의 사례는 '레이호쿠(茶

北町民窟', '미나미오구니(南小國)町營 주택 아츠다(杉田)단지 재건축', '토모 씨문화교류센터', '센단이 연극공방', '클럽 웨스트', '그룹 홈 옹조라 후요우 병원증축' 등으로 모두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다. 여기에 첨부된 6개의 워크샵 리포트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거시설을 계획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개진했으며,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서술하면서 각 워크샵의 성과와 성격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번역/강상훈)

The Architectural Review

2002년 5월

교육의 위기 속에서 건축의 역할을 재고해보고자 하는 취지의 본 호는 히말라야 지역에



서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다양한 지역의 독특한 학교 건축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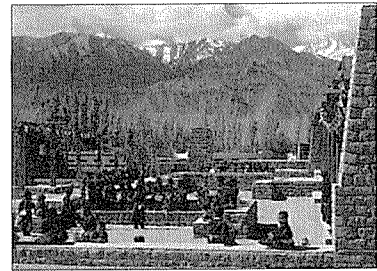
■ 교육과 건축

건축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사회에 대해 배워가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직면해 있는 일련의 교육적 문제들은 정치나 교육 정책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건축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 정보 시대에는 기존의 교육 공간과는 다른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자 기술의 발달로 경제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보다 직접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가능해졌지만, 교육이 사회화 과정의 일환이란 점을 생각할 때 개인 컴퓨터 앞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도록 할 수는 없다.

집을 처음으로 떠나 학교에 온 유치원생부터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까지, 이들의 사회 적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건축의 몫이며, 교육 기관과 지역 사회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설계가 할 일이다. 보다 많은 나라들이 채택해가고 있는 사립 교육 정책이 효율성만 강조하는 일반 학교 건축을 유도하지만 양과 질의 문제를 적절하게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다.

■ 카슈미르 Ladakh의 Druk White Lotus 학교



카슈미르 Ladakh의 Druk White Lotus 학교

Arup Architects & Engineers에서 만든 히말라야의 이 학교는 현대적인 교육 제도와 지역의 불교 문화를 적절히 융합하고자 한다. 86명을 수용하고 있는 두 개의 교실동은 사찰 건축을 모델로 한 중정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다. 외부와의 교류가 눈에 의해 연간 6개월까지 두절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물을 추구했으며, 남쪽을 향해 창을, 산 방향의 북쪽에는 석조벽을 두는 passive solar heating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육 시설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지역 전통과 문화, 재료를 존중하는 학교 건축의 좋은 예이다. 기타 교육 기관으로 ▶ Konrad Frey가 설계한 오스트리아 Styria의 학교, ▶ Hodgetts & Fung의 미국 Pasadena 학생관, Cooper Grana Nicolini Arquitectos의 페루 La Molina 학교, ▶ CUBO Arkitekter의 덴마크 Fyn Odense 대학, ▶ Patel Taylor Architects의 영국 Hitchin 음악관, ▶ Kister Scheithauer Gross의 독일 Halle-Wittenberg 식물학 연구관 등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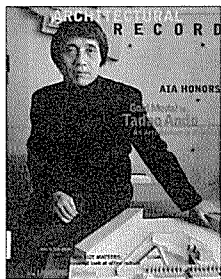
■ 기타

▶ Architectural Review가 3월 중순 RIBA에서 열었던 심포지엄 '유럽 도시의 재활성화' 소식, ▶ Gumuchdjan Associates의 영국 런던 West End 상점 인테리어, ▶ 주택 작품으로 Manabu Chiba의 일본 도쿄 주택이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al Record

2002년 5월

매년 수여되는 AIA 상의 수상작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 호는 특히 Gold Medal을 받은 Tadao



Ando의 작품 세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건물 타입별 연속 기획에서는 스포츠 스타디움의 우수 사례들을 다루었다.

■ 2002 AIA 명예상

건축, 인테리어, 도시 설계 부문으로 나누는 본 상과 더불어 25주년 상, 올해의 설계 사무소, Gold Medal 등으로 나누는 AIA상은 올해 다양한 지역, 규모, 건물 타입의 작품들에 수여되었다. 9/11 테러와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건설 경기는 비교적 안정기를 지나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다양한 건축적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 총 460개의 응모작 중 선정된 18개의 건축 작품, 8개의 인테리어 설계, 4개의 도시 설계가 소개되어 있다. 25주년 상은 Josep Lluís Sert가 설계한 바르셀로

나의 Juan Miro 미술관에 돌아갔으며, 설계 사무소 상은 다양한 종류의 건축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Thompson, Ventulett, Stainback & Associates가 수상했다.

■ AIA Gold Medal 수상자 Tadao Ando

근대의 건축 어휘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독특한 건축 세계를 구축해온 Ando는 콘크리트, 유리, 목재 등 재료의 순수한 특성을 살림으로써 건축의 부가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근본적인 형태에 접근한다. 1976년 스미요시 주택으로 처음 명성을 얻은 후 1980년대의 교회 설계나 박물관 계획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에도 ▶ 미국 Fort Worth의 현대미술관, ▶ 2007년 완공 예정인 프랑스 Seguin Fondation d'Art Contemporain Francois Pinault, 그리고 ▶ 미국 필라델피아의 칼더 미술관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인공미와 자연 세계가 어우러진 환경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칼더 미술관

■ 프리츠커 상 수상자 Glenn Murcutt

첫 회 수상자였던 Philip Johnson 이래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타 건축가들에게 수여되어 오던 프리츠커 상이 올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Glenn Murcutt에게 돌아갔다. 사무실 직원 없이 혼자서 오스트레일리아 내의 소수 주택 건축에만 전념해온 Murcutt은 실용주의와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그의 건축관을 엿볼 수 있는 짧은 인터뷰가 실려있다.

■ 근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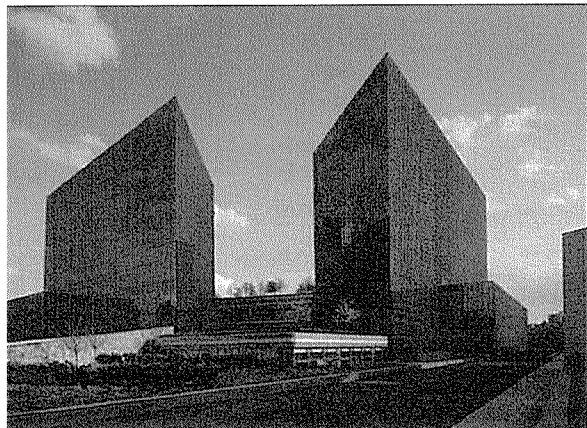
▶ 미국 버지니아 주 McLean의 Gannett/USA Today 본부

Kohn Pederson Fox Associates가 설계한 이 유명 신문의 본부 건물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반사 유리로 처리된 건물동들은 원경에서 볼 경우 그 기하학적 형태들이 만들어내는 관계가 돋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정원 공간을 향해 개방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건물 주변을 야외 주차장으로 채우기보다는 별도의 주차 건물을 만듦으로써 이상적인 자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길이 방향에 제한을 둬서 모든 영역에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테리어는 Lehman-Smith+McLeish가 맡았다.

그 외에 ▶ Tod Williams Billie Tsien Architects의 미국 뉴욕 American Folk Art Museum, ▶ Selldorf Architects의 미국 뉴욕 Neue Galeries, ▶ Axel Schultes Architekten의 독일 베를린 영사관 사무국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 뉴욕 세계무역센터 부지에 대한 향후의 건축 계획, ▶ Christopher Alexander의 최근 저서에 대한 평가, ▶ 대형 프로젝트에서 실현되고 있는 Buckminster Fuller의 장스팬 건축 계획들, ▶ 최신 조명 설계의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 건물 타입별 연구에서는 스포츠 스타디움을 다뤄 월드컵이 열렸던 일본의 삿포로 돐 구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번역 / 전신영)



미국 버지니아 주 McLean의 Gannett/USA Today 본부